

벤처협회장 삼성에 러브콜... “한국형 협력모델 구축하자”

삼성 출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소·부·장 국산화, 경쟁력 도모 위해 대기업-벤처 ‘팀코리아’ 구축 제의 협력사 공정거래 여건 조성 등 제안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기술 독립을 위한 벤처기업협회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한·일 무역 갈등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기업들의 생존에 사활이 걸려있는 지금의 위기 시점에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나 한국형 협력 모델, 즉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

재계의 만형인 삼성이 나서면 SK, LG, 현대차, 롯데 등 주요 그룹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다.

안 회장은 삼성전자 기술총괄본부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2001년 당시 지문인식 등 토털 입력 솔루션 전문기업인 크루셜텍을 창업, 경영해오다 2017년 초부터는 벤처기업협회장까지 맡아 2년 임기를 채운 후 올해 초 재임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안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기업

역사상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한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나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창업 초기) 납품하기 힘들어 미국, 일본 등으로 먼저 가 거래를 트고 나서야 한국(기업)서 받아주더라.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우리 대기업이 품에 안지 않으면 한국에서 기술 벤처 창업은 이뤄질 수 없다. 인재들이 누가 창업을 하겠느냐. 그룹 총수가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 만형인 삼성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협회가 제주에서 주최한 벤처썬머포럼에서도

벤처기업과 대기업 생태계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한국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삼성을 비롯한 5대 기업에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사이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뒷걸음질 치는 등 산업·기업간 시너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협회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

업들이 적극 동참해 벤처기업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핵심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 방안, 테스트 베드 구축, 판로 확보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R&D 기획단계부터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양산→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협력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

또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해외진출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 ▲대기업 보유의 미실현 특허 개방을 통한 사업화 추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 추가 발굴 노력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여건 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지금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라는 두 손바닥이 마주쳐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큰 울림소리를 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격탄을 날렸다.

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심사숙고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내외 기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및 인프라 혁신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국제·국내 정치적 이슈와 진영 논리에만 함몰돼 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위한 담론 마련은 물론이고 현재의 복합적 경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거의 실종돼 있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우리는 과거의 낡은 제도가 벤처기업의 도전정신을 오히려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면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로 정의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안 회장은 주무부처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흡수력이 대단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정치인 출신이 얼마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 장관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해하는 수준과 깊이, 관심 등에서 벤처협회장으로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유통센터, SM면세점 인천공항 입점 특혜” “택시요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내세요”

최인호 의원 자료

SM면세점 추천 업체 입점대상자로 선정위원회 위원에도 직원 포함시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정책매장인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M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SM면세점은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입점 적합성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 입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입점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과 선정위원 구성은 지침에 모두 명기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경우 ▲시내면세점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입점 추진하고 ▲기존 입점제품의 경우엔 별도의 선정위원회 없이 각 매장별 MD의 동의에 따라 입점할 수 있게 돼 있다. 선정위원 또한 유통센터가 모집한 500명의 위원 중 3인 이상과 유통센터 담당 부서장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센터는 SM면세점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의로 규정을 확대해 시내면세점의 매장별 매출 상위 30% 업체까지 범위를 넓히고,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22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 올렸다.

SM면세점이 추천, 이렇게 선정된

22개 업체 중에선 선정위원회를 거쳐 1곳을 제외한 21곳이 최종 입점 대상으로 뽑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은 평가 위원 풀(Pool)에도 없는 SM면세점 직원 1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선정된 21곳 가운데 기존 정책매장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에 대해 ‘부당입점’ 판단을 내렸다.

이후 유통센터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없이 부당입점한 11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를 퇴점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호 의원은 “면세점 입점 선정 권한을 민간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고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하렉스인포텍 ‘모바일 결제 서비스’

유비페이 서비스 기업 하렉스인포텍은 1일 전자식 미터기에 찍힌 택시 요금을 모바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렉스인포텍은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 택시 미터기 등 단말 사업과 차량 통합 관제 서비스 사업자인 아이온뱅크와 함께 전국 택시 네트워크를 통합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카카오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위기를 맞은 택시 업계와 협력하겠다는 거다.

하렉스인포텍이 출시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을 지능 결제에 맞게 특화해 아이온뱅크의 AI미터기와 결합한 것.

하렉스인포텍이 출시한 택시 요금 결제 서비스는 미터기에 내야 할 요금이 뜨면 블루투스를 통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결제할 금액을 푸시로 보낸다. 고객은 푸시에 뜬 요금을 신용카드·체크카

드·은행 계좌·교통카드·지역화폐 등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한다. 유비페이 앱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들어간 협력기업의 은행앱·카드앱만 있으면 앱을 켜지 않더라도 결제 푸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OK캐시백이나 L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포인트 등으로 택시를 결제할 수 있다. 기사에게 팁도 지급할 수도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전자식 미터기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란 점에서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 하렉스인포텍과 아이온뱅크는 이번 플랫폼을 관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콜 서비스, 승차공유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는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전통산업을 모바일로 연동함으로써 시장 변화로 닥쳐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휴롬, 태국서 韓 가전·슬로우 주스 전파

휴롬이 태국 방콕에서 한국 가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슬로우 주스 문화 확산에 나섰다.

휴롬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KCON 2019 타이일랜드’에 참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휴롬 원액기를 선보이고, 휴롬주스 시음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휴롬은 한류 기업으로 인정받아 K가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슬로우 주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휴롬은 태국 슬로우주서 1위 브랜드로서 현지 슬로우주서 시장점유율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태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이 지난달 28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KCON 2019 타이일랜드’에 마련한 부스에서 태국 소비자들에게 휴롬 제품으로 착즙한 주스를 맛보고 있다. /휴롬

개성공단기업協, 현재 위헌심판 촉구

공단 중단조치 위한 여부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3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한 여부에 대한 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헌법재판소에 강력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면서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 등 아무런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